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살아서 미안해..."



9월 11일 아침, 날씨는 유난히도 쾌청했다. 맨하튼으로 출근하는 남편과 딸을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와 밀린 빨래를 하고 장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조금 전에 헤어진 딸의 전화였다.

"엄마, 조종사의 실수로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 중 하나로 들어갔어. 그 빌딩엔 큰 구멍이 났고, 지금 막 불타고 있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몇 분 후, 딸은 엉엉 울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조종사의 실수가 아니고 테러야. 엄마, 나 무서워 어떡해. 쌍둥이 빌딩이 우리 회사 빌딩 쪽으로 넘어질 것만 같아..."

텔레비전을 보니 두 번째 빌딩이 붕괴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딸의 전화도 끊어졌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딸의 휴대폰도 회사 전화도 모두 불통이었다. 별별 상상을 다하며 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맨해튼의 모든 전화가 불통이라고 했다. 가슴을 졸이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버스, 전철, 기차, 택시 등 모든 교통 수단의 운행이 중지되었기에 지금 걸어서 윌리엄스 버그 브리지로 가고 있으며 부루클린에서 차를 타고 집에 갈 것이라고 했다.

"엄마, 나는 살려고 다리 쪽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소방관 아저씨들과 경찰관 아저씨들은 위험한 쌍둥이 빌딩 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너무 미안해... 앞으로 뛰어야 하는지, 뒤로 뛰어야 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 살아서 죽은 사람들에 미안해서 어찌지?" 하면서 계속 울었다.

'그래도 엄마는 너만 무사하면 그만이다'며 속으로 가슴을 쓸어 내렸지만, 그토록 고운 마음씨를 가진 딸에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내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아보고 싶어했던 날입니다. 잊지 말고, 열심과 최선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기정.건강한교회"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제 5권 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2월 2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임 목사님의 오성교회



3년반전, 아무도 없이 예배드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지라 그날은 창립예배할 것도 없이 너른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드리고 그 흔한 차한잔 준비된 것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아팠던 것은 3개월 동안 함께 지냈던 교회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보고싶어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정훈이의 말에 여러번의 전학과 함께 교회 친구까지도 잃게 해야 했던 아버지의 강요에 가슴이 매어졌습니다. 주성이가(임 목사님 아들) "나 오성교회 안가, 갈보리교회 갈꺼야"란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추고 싶었던 눈물이 그제서야 고이는걸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되 비굴하지 않으리라, 착한 교우들을 비진리로부터 지켜가기에 단호하되 따뜻함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했던 길.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종교주의자 앞에서 힘들어했던 장애가 있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함께 1년여를 지냈던 임 목사님을 개척을 위해 떠나보내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평생에 한번쯤은 개척교회를 섬겨보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싶으신 교우께서는 임 목사님과 함께 오성교회로 교적을 옮겨 섬겨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분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든든한 것은 지금의 갈보리교회 교우들의 신앙과 인품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오성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저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여러 은사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은 이번 기회에 잘 사용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성교회로 마음을 결정하신다면 진리의 편에 선 성도, 교회편에 선 성도, 의로움의 편에 선 성도, 목사의 편에 선 성도가 되어 주셔서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로 세워가 주십시오. 남아있는 저희들은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촛불을▶ S 중학교 국어 시험  
 【문제】 다음 사자성어의 빈칸을 채우시오.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과 5가지의 인륜을 삼(三) ( ) 오(五) ( )이라 한다"  
 【정답】 삼(三) 강(綱) 오(五)륜(倫)  
 【어느새 친근해진 A 학생】 → 삼(三) 사(四) 오(五) 육(六)

엄마가 딸에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게하라  
 사람들은 너의 아름다움보다  
 이빨 사이의  
 고춧가루를 더 크게 본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이 생겼으면 기억하라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이 세 용도가 \$10안에 함께 있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2(마태 5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65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교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 21:5-9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잘 세워지는 믿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17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이세진, 박혜련 집사 가정. 2절: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김교섭	김경숙	이세진, 박혜련	경덕현, 고성일
9	김순자	김동숙	최득수, 오지영	권용일, 김경구
16	김영길	김반석	박 실, 변민강	김교섭, 김덕준
23	김중건	김봉희	정종일, 이선애	김반석, 김성국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방학동안 다니러온 친구 목사 아들들 덕에 식구가 배가 늘었습니다. 아내가 먹을 것 해 놓으면 게 눈 감추듯 모든 것이 똑딱 사라지는 모습에 웃음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시절에 자녀들을 키워 낸 우리네 어머니들의 위대함이 떠 올랐습니다. 먹을 것 없어 배고파하며 밥상 주위에 모여들었던 자식들,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었던 어머님들의 타들어 갔을 가슴, 그저 "어머니"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 1. 교우소식

\*이사: 윤한나 집사. ☎480-5315 ✉40 Exmouth Rd. NorthCote  
\*한국 귀국: 박기창 집사(한정옥 집사 남편) 그동안 연구차 계시다 어제 한국으로 귀국.  
\* "행복한 식탁" 공장 Open: 권용일, 이지영 집사.

행, 소시지, 족발, 순대등을 생산판매합니다. Unit D 5-7 Collard Rd. Henderson  
\*방문: 이세진 집사(박혜련 집사 남편). 휴가를 내어 가족들과 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나(딸)도 Rotorua Hospital에서 치료 잘 마치고 왔습니다.

2. 구역예배: 금주 금요일은 정기구역예배 주간입니다. 구역식구를 위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복 주심과 구역식구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구역조정과 함께 구역을 섬기는 담당자 일부를 새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역편성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담당: 박병민 집사. 향촌직: 김영길 집사)

\*우리교회는 부활절기헌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부활절 봉헌물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헌금으로 우리 손으로 쓴 성경을 드리기를 바라서 전교우의 참여를 바랍니다(안내문 참조)

4. 담당교역자, 지도교사

<아동부 책임교사> 윤한나 집사. <학생부> 전병주 전도사

5. 제2남선교회: <회장> 박병민 집사 <총무> 이재영 집사 <회계> 이근평 집사

6. 사임: 임성광 목사. 오성교회 개척위해 사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7. 당회: 화요일(4일) 저녁 7:30. 교회

8. 오성교회 창립예배: 임성광 목사. 오늘 창립예배를 드림을 시작으로 구원의 방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갈것입니다. 창립예배에 다같이 참석하셔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저녁 6시. St Paul. 10 Otakau Rd. Milford

9. 오글랜드 남성 중창단 "익투스" 정기공연(예고)

<일시> 2월9일(다음주일) 저녁 7:30 <장소> Pump House

\*우리교회 교우들께서 공연에 참가합니다. 축하와 격려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투스: 김영길, 살롬: 이규임, 신경화, 첼로: 박경주

### ◀작한 시인들▶ 조홍시가(早紅柿歌)

- 박인로 -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 안이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난  
품어 가 반기리 업술식 글로 세워하나이다.



설날 아침, 무엇보다 부모님 모습이 가슴 안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도로가 막혀 하룻밤이 걸려도,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서서 가는 기차안의 설빔도 품고 갈 수 있을 때가 행복한 줄 알겠습니다.

품어 가는 조홍감을 반겨주실 아버지, 너무 멀리 계시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